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 2. 21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英, 테러범 자동가석방제도* 중단 긴급입법안 하원 승인
 - 2.11 BBC는 최근 자동가석방제도로 풀려난 테러범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자 英 하원이 同 제도를 중단하는 긴급입법안을 승인했고, 이는 ISIS선전 혐의로 수감되어 2.28 석방 예정인 「모하메드 자이르 칸」을 비롯한 수감자 50여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
 - * 형기의 절반 복역 시 별도 심사 없이 자동 가석방되는 제도
- 獨, 이슬람사원 동시테러 계획하던 극우테러단체원 검거
 - 2.17 獨 내무부는 국가혼란 및 내란선동을 목적으로 독일 전역의 이슬람사원 6개소를 대상으로 ‘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테러’ (‘19.3월) 방식의 무차별 총기난사 테러를 계획하던 극우주의자 1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
- 佛, 자국내 이슬람 종교지도자 활동 규제
 - 2.19 AP는 佛대통령이 자국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이슬람 9개국이 프랑스로 이맘(이슬람 종교지도자)을 보내 자국민들에게 언어와 문화를 교육해온 프로그램을 금년 9월부터 규제할 것이라고 발표
 - * 佛은 유럽 최다 무슬림 인구가 있어 가치 갈등에 따른 테러가 빈발
- 러시아, 학교 겨냥 폭탄테러 계획한 10대 2명 체포
 - 2.19 러시아 연방보안국(FSB)은 우크라이나 크림주 케르치市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폭탄테러를 계획한 10대 2명을 체포하고, 사제 폭탄장치와 폭발물질을 압수하였다고 발표
 - * 용의자들은 애완동물을 대상으로 사제폭발물 폭발실험 실시

미 주

- 「트럼프」美대통령, 우선순위 제치고 빈라덴 아들 제거에 집착
 - 2.16 NBC는 「트럼프」美대통령이 “유일하게 아는 이름”이라는 이유로 CIA의 우선순위를 제치고 9.11 테러를 주도한 「오사마 빈라덴」의 아들 「함자 빈라덴」을 먼저 제거('18년)하도록 압박했으며, 결과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우선순위 표적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보도
 - * ISIS 수괴 「알 바그다디」 : '19.10월 사망 / AQAP 창설자 「카심 알리미」 : '20.1월 사망
- 「폼페이오」美국무장관, 西아프리카 지역內 미군 재배치 논의
 - 2.16 「폼페이오」美국무장관은 세네갈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“西아프리카 지역內 이슬람 극단주의 폭력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미군 병력 규모를 협의하고 있다”고 언급, 미군의 전면 철수가 아닌 감축을 시사
 - * '19.12월 美 국방부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西아프리카 지역의 미군(약7,000명) 축소와 철군을 검토한다고 발표

아 · 태평양

- 파키스탄, 인도 뭄바이 테러* 기획자 징역 5년 6월 선고
 - 2.12 파키스탄 법원은 ‘인도 뭄바이 테러’의 기획자로 지목되었으나,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刑 선고가 지연된 ‘라쉬카르 에 타이바’의 수괴 「하피즈 사이드」에 대해 테러자금 조달 혐의로 징역 5년 6월 선고
 - * '08. 11. 26 ~ 29 약 60시간 동안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테러범 10명이 뭄바이 시내 곳곳을 무차별 공격하여 188명 사망, 293명 부상
- 인도·파키스탄, SNS업체 보유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 강화 추진
 - 2.14 인도·파키스탄 정부는 테러 및 범죄예방을 위해 페이스북·유튜브·트위터 등 SNS 업체로부터 사용자 신분정보를 제공받고, 불법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접근권한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

인도 잠무 카슈미르주 차량 폭탄테러

- '19.2.14 인도 북부 잠무 카슈미르주 펠와마 지역에서 경찰수송버스를 겨냥한 차량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44명 사망·30여명 부상



- 테러범은 인도 경찰 2,500여명이 탑승한 차량행렬을 겨냥하여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으로 돌진·자폭하였으며
- 사건 직후,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「자이쉬 에 무함마드(JeM)*」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

*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잠무 카슈미르의 파키스탄 편입 등을 주장

-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 정부가 JeM의 결성을 지원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파키스탄 정부를 테러의 실질적인 배후로 지목
 - 파키스탄에 대해 최고우대세율을 철회하는 등 경제 제재를 가하고
 - 군사 보복의 일환으로 '19.2.26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 위치한 JeM의 캠프를 공격하여 300여명의 사상자 발생

테러 상식

< 카슈미르(Kashmir) >

- **(위치)** 인도반도의 북부 지역으로 인도와 파키스탄, 중국의 경계에 있는 산악 지대
- **(역사)** 1947년 인도반도에서 영국이 철수하며 동 지역이 종교적 갈등으로 인도·파키스탄 2개 국가로 분리 독립
 - 주민 다수가 무슬림이던 카슈미르 지역이 힌두 지배층에 의해 인도 편입이 결정되면서 분쟁 시작
 - 1949년 양국간 합의로 카슈미르 지역은 잠무 카슈미르(인도령)와 아자드 카슈미르(파키스탄령)로 분할(이후 1962년 중국이 카슈미르 동쪽을 편입)
 - 동지역은 양국간 적대관계의 상징이자 표출구로, 3차에 걸친 인도-파키스탄 전쟁 중 1~2차전이 표면상 카슈미르 문제로 촉발
- **(테러단체)** 무슬림이 다수인 잠무 카슈미르의 파키스탄 편입을 주장하는 10여개의 이슬람 무장단체(JeM, LeT, HUM 등)가 카슈미르 지역에서 빈번히 테러 자행

